

전북교육문화회관, 2020년 하반기 「마음을 채우는 끝림의 인문학」 운영

2020-09-23 10:14 장예진 기자

문학, 인문, 역사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만나는 인문학 강연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도 「마음을 채우는 끝림의 인문학」강연을 개최한다.



전북교육문화회관 / google

10월부터 12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문학, 인문, 역사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전북교육문화회관 2층 교육4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마음을 채우는 끝림의 인문학」은 특정 주제의 명사를 초청, 소통과 배움을 통해 지역주민의 지적 욕구 충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한다.

10월 7일(수) 오후 7시 나사렛 대학교 문학치료학과 이봉희 명예교수의 '내 마음을 만지다-글쓰기문학치료'를 시작으로 인문, 역사 분야 주제를 포함하여 12월까지 강연이 펼쳐진다.

두번째 주제는 인문으로 '전주, 택리지'를 주제로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의 신정일 문화사학자의 강연과 이어서 역사를 주제로 인문학교육연구소의 양진호 강사의 「그리스·로마 문명을 다시 본다」 강연이 진행된다.

참여는 학생 및 학부모 30여명 선착순으로, 회관 누리집 온라인접수나 당일 현장 접수로 받을 예정이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특히, 모든 강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운영된다.

#도교육청 #인문학강연 #전북교육문화회관

위키트리 뉴스 스토리텔링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며, (주)소셜뉴스는 이 글에 대한 재배포 권한을 갖습니다.

© Social News Co., Ltd. All Right Reserved.